

상장사協-코스닥協 ‘차등 의결권’ 등 도입 촉구

“기업 사냥꾼에 맞설 방어장치 달라” 상장사의 호소

엘리엇, 현대 합병에 반대표 행사
 韓정부에 6.7억 달러 규모 소송도

“차등의결권 주식·포이즌 필 등
 경영권방어 관련제도 도입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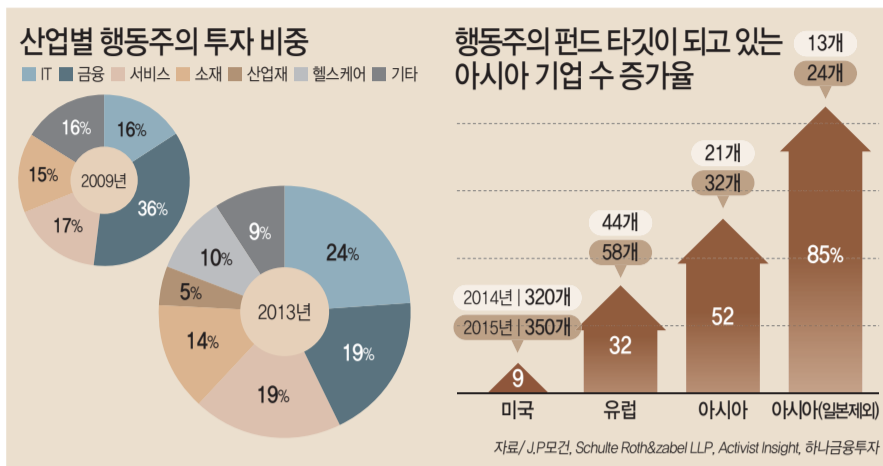
‘벌처 펀드(vulture fund)’의 기업 사냥에 한국 자본시장과 재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매직램프(머튀 헤지펀드 이야기)’라는 소설 속 얘기가 아니다. 실재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 11일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합병에 반대표를 행사기로 했다.

이것도 모자라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억7000만 달러(약 72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나섰다.

SK(소버린), 삼성물산(엘리엇)이 벌처펀드에 곤욕을 치렀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부유출을 막을 백기사도 사라졌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이 ‘배임’의 탓에 걸려 곤욕을 치른 것을 본 기관이 선뜻 제목소리를 낼 여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제2, 3의 룬스타나 소버린이 무형 입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려면 소액주주가 배당과 같은 눈앞의 이익보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진정한 ‘주주행동주의자(Shareholder activist



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보호할 방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재계, “더이상 안돼”...보호장치 있어야
 2000여 기업이 ‘주주 행동주의(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에 따른)’로 포장한 머튀외국자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6일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제도와 같이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우리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감사(위원) 선임 시 3% 대주주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통념상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의 경우 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제한을 두어 역할별 요소를 없애야 한다”면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포이즌 필’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 부작용은 반복되고 있다. 머튀들이다. SK와 KT&G, 두 건의 사례만 보더라도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 500억원 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격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정책당국에

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그 충격이 더 크다.

두 협회는 “상장회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기는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도 경영권 방어 조치에 공감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2의 소버린, 제2의 엘리엇이 나오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소액주주, 진정한 행동주의 생각해 볼 때
 엘리엇이 걸로 내세우는 것은 주주가치다. 하지만 본질은 돈이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보이는 것 중에는 그 이면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오랫동안 보아 왔다는 이유로 ‘당연함’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되새겨보자. 스마트폰의 시적인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남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고정 관념을 탈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행동주의 투자의 관점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당연함과 관성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부정하고 새로운 본질을 들여다보고 행동한다면 소액주주 하나하나의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것이다. 제2의 스티브 잡스는 멀리 있지 않다”면서 “주식소각이나 배당은 눈앞의 이익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같은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보다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부실 책임 추궁, 구조조정,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행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관심이 밸류에이션(Valuation) 개선으로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진정한 주주행동주의자(Shareholder activist)가 돼야 한다는 것.

벌처펀드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스스로도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주주를 바꾼다’란 보고서에서 “기업도 자체적으로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단기 실적주의를 지양하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초격차 1등이 CJ가 추구하는 온리원”

경영복귀 1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온리원 컨퍼런스 참석·임직원 시상
 “성과이룬 임직원 노력·열정에 감사”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초격차 역량을 확보해 세계에 인정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이 되자.”

오는 17일로 경영복귀 1년을 맞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CJ 인재원에서 열린 ‘2018 온리원 컨퍼런스(ONLYONE Conference)’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2020 그레이트 CJ, 2030 월드 베스트 CJ’ 달성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온리원 컨퍼런스’는 지난 1년간 높은 성과를 거둔 임직원을 시상하는 그룹 차원의 시상식 겸 컨퍼런스로 이 회장을 비롯해 CJ주식회사 김흥기 대표이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사업 및 미래를 향한 도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해외 현지 채용 임직원들과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감의 자리로 확대·개최됐다.

이 회장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되짚으며 “그 동안 우리는 사업구조 재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대도약을 준비해왔고, 글로벌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며 “우리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임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재현 CJ 회장

/CJ

이어 이 회장은 향후 글로벌에서의 비약적 도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등 기업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인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것이 사업보국의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라며 “국내 압도적 1등에서 나아가 글로벌 1등이 되어야 2020년 그레이트 CJ를 넘어 2030년 월드 베스트 CJ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 3등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의 무한경쟁력인 ‘초격차역량’이 필수적이며, 초격차역량을 갖춘 1등이 바로 CJ가 추구하는 온리원”이라며 “각 사업별 글로벌 TOP 수준의 초격차역량을 확보하고, 계속 진화 혁신한다면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임직원들과 ‘월드베스트 CJ는 우리의 도전’이라는 공감을 확산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국가와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했고, 없던 사업, 안 된다고 반대하던 사업을 의지와 절박함으로 성공시킨 저력이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일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는 ‘하고잡이’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CJ그룹은 2020년 매출 100조를 실현하는 ‘그레이트 CJ’, 2030년 3개 이상의 사업에서 세계 1등이 되는 ‘월드베스트 CJ’를 목표로 각 사업부문별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이 회장이 다시 경영에 나서면서 식품·바이오·물류·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등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바쁘게 진행해왔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식품·생물자원·바이오·소재 등 4개 부문을 식품과 바이오로 통합했으며, CJ대한통운의 추가지분을 확보해 단독 자회사로 전환했다. 또, CJ푸드빌은 투썸플레이스 브랜드를 분리 독립시키고 투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히 오는 7월1일 CJ오쇼핑과 CJ E&M 두 계열사 합병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도전할 국내 최초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 CJ ENM 출범도 예고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사업구조 재편 및 각 계열사들의 글로벌 도전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그룹 내부에서 미래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베스트사업사례를 시상하고 의미를 확산하는 온리원 컨퍼런스를 계기로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8 온리원 대상’은 성과창출, 가치실현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총 9개 조직 및 개인에 수여됐다. 성과창출 부문에서는 CJ제일제당 식품HMR, CJ대한통운 프랜차이즈 물류, CJ E&M의 프로듀스101과 tvN 윤식당팀 등 4개 조직이, 가치실현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의 PGA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THE CJ CUP TF팀을 비롯, 투썸플레이스, 올리브영 브랜드사업부, CJ오쇼핑의 DADA 스튜디오 등 4개 조직이 수상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분할·합병 논란 현대차그룹 ‘진통’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현대차그룹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분할·합병 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세계 의결권 전문가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9일 주주총회 전까지 분할·합병안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찬성표 모으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현대글로벌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8일 현대모비스를 ‘핵심 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다음 모듈·AS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벌비스에 합병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흥선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 함으로써 현대글로벌비스 지분율이 높은 총수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했지만 실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재구성할 경우 분할법인은 전체가치의 53.1%~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총수일가는 20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고, 반대로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